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미국채 20년물 입찰 부진 속 국채 금리 상승 부담에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1일(수) 미 증시는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안 추진 압박 속 재정적자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채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 부진. 이로 인해 미국채 금리가 재차 급등하며 테슬라(-2.7%), 엔비디아(-1.9%), 애플(-2.3%), 마이크로소프트(-1.2%) 등 M7을 필두로한 주요 기술주가 조정세를 보인 결과 미 증시는 하락 마감 (다우 -1.91%, S&P500 -1.61%, 나스닥 -1.41%).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 촉발한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 여진이 금주 들어 미 증시의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하고 있는 흐름. 트럼프는 공화당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메가빌'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자 우려를 가중시킴에 따라 최근 미국채 금리의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현재 미국채 30년물 금리 5.09%, 10년물 금리 4.59% 레벨까지 상승).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소비세 감세 등 재정책대 우려가 커지며 일본 20년물 국채 금리가 2.58%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등했고, 미국채 20년물 입찰 또한 부진하며 전일 미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을 가중. 시장 금리의 상승은 최근 한달 간 반등하며 재차 밸류에이션 부담에 노출된 미 증시 전반에 걸쳐 조정 압력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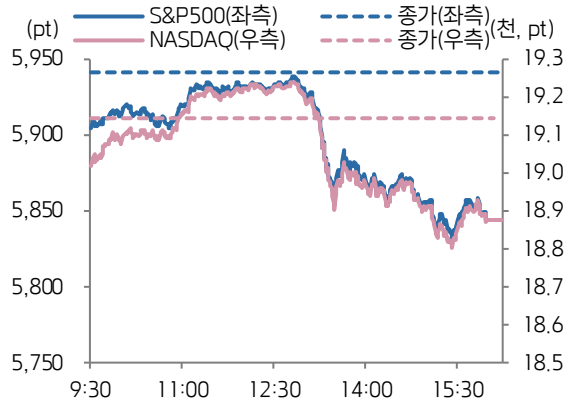
실제로 현재 S&P500의 12개월 선행 PER은 21.7배로 과거 5년 평균치(20.1배)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 결국 현재는 미 증시, 채권, 달러화 등 트리플 약세를 보이며 재차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임을 감안시 미 증시의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지속될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한편, 시장 금리 외에도 환율 관련 뉴스플로우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흐름. 특히, 전일 한국 기재부에서의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는 등 한미 간 환율 협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371.8원까지 급락. 현재 원달러 환율 레벨은 지난해 12월 계엄 수준 이전 레벨대까지 하락한 상태. 현재와 같은 낮은 레벨대의 원달러 환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향후 국내 주요 수출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재정적자 우려 속 시장금리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압력 해소 속 조선, 방산, 원전 등 개별 모멘텀 보유한 다수의 업종으로 외국인 및 기관 동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코스피 +0.91%, 코스닥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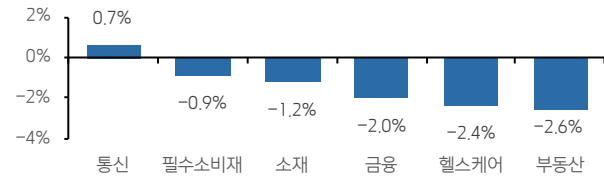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미 증시 하락으로 장 초반 약보합권으로 출발할 전망. 다만, 이후 뚜렷한 지수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개별 모멘텀 보유한 업종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레벨까지 하락함에 따라 원화 강세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여행, 유틸리티 업종 혹은 내수주가 금일에는 수출주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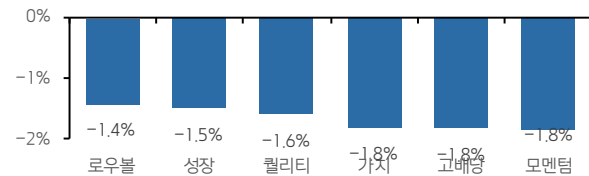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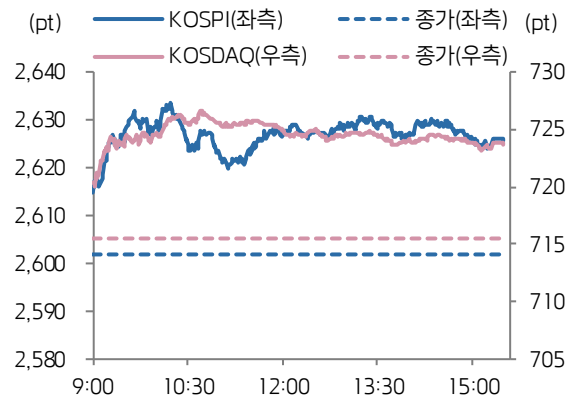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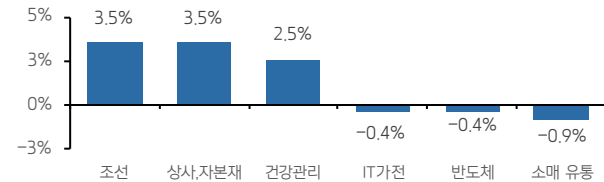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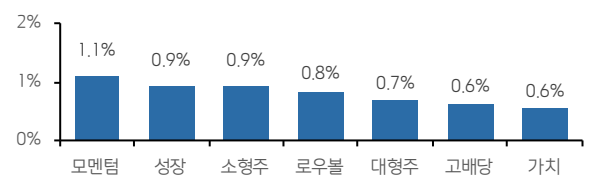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02.09	-2.31%	-19.1%	GM	49.37	-1.67%	-7.09%
마이크로소프트	452.57	-1.22%	+7.78%	일라이릴리	724.95	-2.95%	-5.74%
알파벳	168.56	+2.79%	-10.85%	월마트	96.43	-1.4%	+7.28%
메타	635.50	-0.25%	+8.63%	JP모건	261.04	-1.75%	+10.13%
아마존	201.12	-1.45%	-8.33%	엑손모빌	103.66	-1.23%	-1.88%
테슬라	334.62	-2.68%	-17.14%	세브론	135.56	-1.25%	-4.22%
엔비디아	131.80	-1.92%	-1.85%	제너럴일렉트릭	96.43	-1.4%	+7.3%
브로드컴	229.73	-0.84%	-0.61%	캐터필러	342.51	-2%	-4.78%
AMD	112.06	-1.28%	-7.23%	보잉	203.21	-2.15%	+14.81%
마이크론	95.84	-2.3%	+14.03%	넥스트에라	71.54	-3.9%	+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25.58	+0.91%	+9.42%	USD/KRW	1,371.80	-1.62%	-6.83%
코스피200	349.38	+0.68%	+9.93%	달러 지수	99.61	-0.51%	-8.19%
코스닥	723.62	+1.13%	+6.7%	EUR/USD	1.13	+0.43%	+9.44%
코스닥150	1,159.77	+1.37%	+2.65%	USD/CNH	7.20	-0.15%	-1.82%
S&P500	5,844.61	-1.61%	-0.63%	USD/JPY	143.68	-0.57%	-8.6%
NASDAQ	18,872.64	-1.41%	-2.27%	채권시장			
다우	41,860.44	-1.91%	-1.61%	가격	DTD(bp)	YTD(bp)	
VIX	20.87	+15.37%	+20.29%	국고채 3년	2.344	+1.2bp	-25.1bp
러셀2000	2,046.56	-2.8%	-8.23%	국고채 10년	2.760	+3.8bp	-11.1bp
필라. 반도체	4,802.71	-1.8%	-3.56%	미국 국채 2년	4.019	+4.9bp	-22.2bp
다우 운송	14,559.22	-2.7%	-8.41%	미국 국채 10년	4.599	+11.2bp	+2.9bp
상해종합	3,387.57	+0.21%	+1.07%	미국 국채 30년	5.092	+12.3bp	+31.1bp
항생 H	8,660.94	+0.84%	+18.81%	독일 국채 10년	2.646	+4bp	+27.9bp
인도 SENSEX	81,596.63	+0.51%	+4.4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454.46	+0%	+11.41%	WTI	61.57	-0.74%	-11.84%
MSCI 전세계 지수	881.62	-0.09%	+4.79%	브렌트유	64.91	-0.72%	-13.04%
MSCI DM 지수	3,870.03	-0.11%	+4.37%	금	3,341.90	+0.88%	+23%
MSCI EM 지수	1,167.46	+0.07%	+8.55%	은	33.46	+1.46%	+14.43%
MSCI 한국 ETF	59.10	+1.2%	+16.13%	구리	463.80	+0.4%	+15.19%
디지털화폐				BDI	1,340.00	-0.52%	+34.4%
비트코인	108,282.45	+1.24%	+15.55%	옥수수	461.00	+1.43%	-1.65%
이더리움	2,509.62	-0.19%	-25.01%	밀	549.25	+0.6%	-3.56%
				대두	1,062.75	+0.93%	+2.71%
				커피	370.30	+0.27%	+2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